

## 한국, 캐나다 및 호주 방사선사의 직업의식

### — The Job Consciousnes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Korea, Canada, and Australia —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 ·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sup>1)</sup> · 원자력병원 방사선 종양학과<sup>2)</sup>

한은옥 · 권덕문 · 박광훈 · 최승윤 · 정충현 · 배상일<sup>1)</sup> · 오창우<sup>2)</sup>

#### — 국문초록 —

해외취업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나라인 캐나다와 호주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직업의식을 조사하여 국내 방사선사와 비교함으로써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방사선사와 전공학생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경우 1475 Edmonton Street, Prince George, BC, Canada에 있는 Prince George Resonal Hospital, 호주의 경우 Commercial Road Melbourne 3004, Australia에 있는 Alfred Hospital, 한국의 경우 캐나다 및 호주와 유사한 규모의 종합병원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캐나다는 2007년 8월 13일부터, 한국은 2007년 9월 10일부터, 호주는 2008년 8월 4일부터 각각 약 일주일간 방문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방사선사의 성별로 한국은 남자 18명(90%), 캐나다와 호주는 여자가 각각 14명(73.7%), 25명(86.2%)으로 국가별 방사선사 구성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한국, 캐나다, 호주 모두 '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3. 직업에 대한 가치에서 한국은 '경제적 자립',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이 높게 나타났고 캐나다와 호주는 '일 자체가 좋아서', '자아실현을 위하여',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가 높게 나타났다.
4. 직업에 대한 의견 중 '직업은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다'에서 한국은 '그렇다',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5. 한국, 캐나다, 호주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직업의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캐나다와 호주에 비교하여 직업관련 의식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각 국가별 표본선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범위가 빈약하여 전체 방사선사 의견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방사선사의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주요 국가를 비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중심 단어:** 한국, 캐나다, 호주, 직업의식, 방사선관계종사자

\*접수일(2009년 3월 13일), 1차심사(2009년 5월 25일), 확정일(2009년 6월 1일)

책임저자: 한은옥, (702-722)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 7번지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  
TEL: 011-9592-9829, 053-320-1314  
FAX: 053-320-1449, E-mail: eohan@mail.dhc.ac.kr

## I. 서 론

직업은 개인에게 경제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주요 도구로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다차원에 걸친 사회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sup>1-2)</sup>. 또한 직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유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질과 재능 그리고 개성에 적합해야 한다<sup>1)</sup>.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의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직업의식을 고취한다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sup>3)</sup>. 직업의식은 직업관, 직업의 가치관, 진로의식, 취업의식 등 다양한 개념들과 함께 혼재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며<sup>4)</sup>, 직업의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제한적 분석과 전체 국민을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을 측정하는 것이다<sup>1)</sup>.

근래 지식정보화와 글로벌화는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sup>5)</sup>, 최근 방사선분야의 해외 진출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나 방사선사의 해외취업과 관련된 직업의식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비하다.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직업관을 국제적 맥락에서 조망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사선사의 해외 취업에 대해 관심이 높은 나라인 캐나다와 호주 방사선사의 직업의식을 조사하여 국내 방사선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방사선사 및 전공학생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해외취업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캐나다 및 호주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직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고자 의료기관 및 방사선사 수의 규모가 유사한 곳 중 설문조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1475 Edmonton Street, Prince George, BC, Canada에 있는 Prince George Resional Hospital, 호주의 경우 Commercial Road Melbourne 3004, Australia에 있는 Alfred Hospital, 한국의 경우 캐나다 및 호주와 유사한 규모의 종합병원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다는 2007년 8월 13일부터, 한국은 2007년 9월 10일

부터, 호주는 2008년 8월 4일부터 각각 약 일주일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각 20부, 20부, 29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sup>1)</sup>, 윤일선(2004)<sup>6)</sup>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6문항, 직업특성 4문항, 가치 10문항, 의견 5문항, 보수 3문항, 복지후생 6문항으로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직업에 관련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은 각 문항마다 4점 척도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주요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직업특성,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2. 국가별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3. 국가별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의 수준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다.
4. 국가별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 캐나다 및 호주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로 각각 20명, 20명, 29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남자 18명(90%), 캐나다는 여자 14명(73.7%), 호주는 여자 25명(86.2%)으로 나타나 국가별 방사선사 구성원의 성별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은 한국의 경우 40대(75%),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분포, 호주의 경우 20대 19명(65.5%)으로

국가별 연령층의 범위가 다양했다. 학력은 한국은 대졸 12명(60%), 캐나다는 전문대졸 11명(55%), 호주는 대졸 23명(7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한국, 캐나다, 호주 각각 17명(85%), 7명(85%), 23명(79.3%)으로 모두 정규직원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한국은 16~20년

이상이 10명(52.6%), 캐나다와 호주는 5년 이하가 각각 9명(45%), 17명(60.7%)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급여는 한국 251~300만원 1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의 경우는 무응답이 많았으며 호주의 경우는 근무형태가 다양하여 급여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escription	Item	Korea		Canada		Australia	
		n	(%)	n	(%)	n	(%)
Gender	Male	18	(90.0)	5	(26.3)	4	(13.8)
	Female	2	(10.0)	14	(73.7)	25	(86.2)
	Total	20	(100.0)	19	(100.0)	29	(100.0)
Age	20s	1	(5.0)	5	(25.0)	19	(65.5)
	30s	3	(15.0)	6	(30.0)	7	(24.1)
	40s	15	(75.0)	4	(20.0)	1	(3.4)
	50s	1	(5.0)	5	(25.0)	1	(3.4)
	60s	0	(0)	0	(0)	1	(3.4)
	Total	20	(100.0)	20	(100.0)	29	(100.0)
Academic background	Highschool	0	(0)	3	(15.0)	1	(3.4)
	Junior college	7	(35.0)	11	(55.0)	2	(6.9)
	University	12	(60.0)	3	(15.0)	23	(79.3)
	Graduate school	1	(5.0)	3	(15.0)	3	(3)
	Total	20	(100.0)	20	(100.0)	29	(100.0)
Types of employments	Full-time	17	(85.0)	17	(85.0)	23	(79.3)
	Part-time	3	(15.0)	0	(0)	3	(10.3)
	Temporary	0	(0)	0	(0)	1	(3.4)
	Itinerant	0	(0)	1	(5.0)	1	(3.4)
	Dispatched	0	(0)	0	(0)	0	(0)
	Others	0	(0)	2	(10.0)	1	(3.4)
	Total	20	(100.0)	20	(100.0)	29	(100.0)
Career	Less than 5 years	0	(0)	9	(45.0)	17	(60.7)
	6~10 years	2	(10.5)	3	(15.0)	6	(21.4)
	11~15 years	6	(31.6)	2	(10.0)	2	(7.1)
	16~20 years	10	(52.6)	1	(5.0)	2	(7.1)
	More than 21 years	1	(5.3)	5	(25.0)	1	(3.6)
	Total	19	(100.0)	20	(100.0)	28	(100.0)
Average salary	Less than 1.50 million wons	0	(0)	1	(5.0)	6	(21.4)
	151~200 million wons	2	(10.0)	0	(0)	1	(3.6)
	201~250 million wons	1	(5.0)	1	(5.0)	3	(10.7)
	251~300 million wons	13	(65.0)	0	(0)	1	(3.6)
	301~350 million wons	1	(5.0)	0	(0)	0	(0)
	351~400 million wons	0	(0)	1	(5.0)	6	(21.4)
	401~450 million wons	1	(5.0)	0	(0)	2	(7.1)
	451~500 million wons	1	(5.0)	2	(10.0)	2	(7.1)
	500~600 million wons	0	(0)	1	(5.0)	3	(10.7)
	600~700 million wons	0	(0)	0	(0)	1	(3.6)
	More than 701 million wons	0	(0)	1	(5.0)	3	(10.7)
Total	19	(100.0)	7	(100.0)	28	(100.0)	

Table 2. Self-efficacy for the job

Description	Item	Korea		Canada		Australia	
		n	(%)	n	(%)	n	(%)
1. I focus my attention on doing my job in working hours.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4	(20.0)	0	(0)	0	(0)
	Yes	7	(35.0)	12	(60.0)	16	(55.2)
	Absolutely Yes	9	(45.0)	8	(40.0)	13	(44.8)
2. I always make my goal and check the process of works based on the goal.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5	(25.0)	1	(5.0)	2	(6.9)
	Yes	14	(70.0)	14	(70.0)	22	(75.9)
	Absolutely Yes	1	(5.0)	5	(25.0)	5	(17.2)
3. I can analyze the results and causes of a work exactly.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13	(68.4)	1	(5.0)	0	(0)
	Yes	5	(26.3)	9	(45.0)	20	(69.0)
	Absolutely Yes	1	(5.3)	10	(50.0)	9	(31.0)
4. I quickly change some faults to right ways when I recognize some problems in my works.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7	(35.0)	0	(0)	0	(0)
	Yes	12	(60.0)	10	(50.0)	9	(31.0)
	Absolutely Yes	1	(5.0)	10	(50.0)	20	(69.0)
5. I am confident that I will finish my works on time.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4	(20.0)	0	(0)	0	(0)
	Yes	12	(60.0)	11	(55.0)	14	(48.3)
	Absolutely Yes	4	(20.0)	9	(45.0)	15	(51.7)
6. I can fully use various information for achieving the given work.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7	(35.0)	0	(0)	0	(0)
	Yes	10	(50.0)	10	(50.0)	11	(37.9)
	Absolutely Yes	3	(15.0)	10	(50.0)	18	(62.1)

## 2.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 집단 내 타인에 비해 스스로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업무능력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정도 등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업무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한국 ‘매우 그렇다’ 9명(45%),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다’가 각각 12명(60%), 16명(55.2%)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에서는 한국, 캐나다, 호주 모두 ‘그렇다’가 70%로 높게 차지했다. ‘나는 어떤 일의 결과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에서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나타난 반면에 캐나다와 호주는 ‘매우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 ‘나는 업무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는 한국 보다는 캐나다와 호주가 높게 나타났다. ‘나는 업무

를 제 시간 안에 끝마칠 자신이 있다’는 한국, 캐나다 모두 ‘그렇다’, 호주는 ‘매우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 ‘나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 캐나다 모두 ‘그렇다’, 호주는 ‘매우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 3. 직업에 대한 특성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한국, 캐나다, 호주 모두 ‘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나 직업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한국은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캐나다와 호주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가 한국과 호주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캐나다는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국, 카

Table 3. Characteristics for the job

Description	Item	Korea		Canada		Australia	
		n	(%)	n	(%)	n	(%)
1.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selection of a job?	Salary	9	(45.0)	5	(25.0)	4	(13.8)
	Aptitude	10	(50.0)	13	(65.0)	21	(72.4)
	Parent's instruction	0	(0)	0	(0)	0	(0)
	Viewpoints of others	0	(0)	0	(0)	0	(0)
	Specialty	1	(5.0)	0	(0)	3	(10.3)
	Others	0	(0)	2	(10.0)	1	(3.4)
2. Who is the most significantly influence on my way and job?	Parent	10	(50.0)	6	(30.0)	10	(35.7)
	Friends	6	(30.0)	3	(15.0)	2	(7.1)
	Relatives	2	(10.0)	1	(5.0)	3	(10.7)
	Teachers	0	(0)	3	(15.0)	1	(3.6)
	Great men in history	0	(0)	0	(0)	0	(0)
	Fellows or Seniors	1	(5.0)	0	(0)	2	(7.1)
	Others	1	(5.0)	7	(35.0)	10	(35.7)
3. When do you consider your job in detail?	Before elementary school age	0	(0)	0	(0)	0	(0)
	Elementary school age	0	(0)	1	(5.0)	0	(0)
	Middle school age	2	(10.0)	0	(0)	0	(0)
	High school age	15	(75.0)	6	(30.0)	18	(62.1)
	After graduate high school	2	(10.0)	4	(20.0)	4	(13.8)
	University	0	(0)	6	(30.0)	4	(13.8)
	After graduate University	0	(0)	3	(15.0)	3	(10.3)
	Never thought	1	(5.0)	0	(0)	0	(0)
4. Select two items that are considered as important elements in the selection of a job.	Presenting aptitude and interest	10	(25.0)	16	(42.1)	20	(37.0)
	Find a rewarding through the contribution to the society	2	(5.0)	4	(10.5)	6	(11.1)
	Small stresses	2	(5.0)	0	(0)	2	(3.7)
	Pursuing self-development	3	(7.5)	4	(10.5)	10	(18.5)
	A way in stable	7	(17.5)	6	(15.8)	9	(16.7)
	High salary	3	(7.5)	6	(15.8)	1	(1.9)
	Long age limit	2	(5.0)	0	(0)	1	(1.9)
	Maintaining various relationships with others	1	(2.5)	2	(5.3)	4	(7.4)
	Social recognition	9	(22.5)	0	(0)	1	(1.9)
	Lots of free hands	1	(2.5)	0	(0)	0	(0)
	Others	0	(0)	0	(0)	0	(0)

나다, 호주 모두 ‘흥미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 4. 직업에 대한 가치

직업에 대한 가치에서 한국은 ‘경제적 자립’, ‘일 자체가 좋아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 ‘노후대책을 위하여’가 높게 나타났고 ‘자아실현을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부분이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호주는 ‘경제적 자립’, ‘일 자체가 좋아서’, ‘자아실현을 위하여’,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 ‘노후대책을 위하여’ 부분이 높게 나타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이 낮게 나타나 캐나다와 호주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자아 실현을 위하여’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한국은 낮게 나타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는 캐나다와 호주는 낮게 나타난 반면 한국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3개국 모두 낮게 나타났다(Table 4).

### 5. 직업에 대한 의견

직업에 대한 의견으로 ‘직업은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다’에서 한국은 ‘그렇다’,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지 않다’

Table 4. Values for the job

Description	Item	Korea		Canada		Australia	
		n	(%)	n	(%)	n	(%)
1. For achieving economic self-sufficiency by money	Absolutely No	1	(5.0)	0	(0)	0	(0)
	No	1	(5.0)	0	(0)	2	(6.9)
	Yes	4	(20.0)	11	(55.0)	12	(41.4)
	Absolutely Yes	14	(70.0)	9	(45.0)	15	(51.7)
2. Love the job itself	Absolutely No	1	(5.0)	0	(0)	0	(0)
	No	7	(35.0)	0	(0)	1	(3.4)
	Yes	12	(60.0)	6	(30.0)	17	(58.6)
	Absolutely Yes	0	(0)	14	(70.0)	11	(37.9)
3. Establishing self-actualization	Absolutely No	1	(5.3)	0	(0)	2	(6.9)
	No	11	(57.9)	4	(20.0)	4	(13.8)
	Yes	7	(36.8)	11	(55.0)	17	(58.6)
	Absolutely Yes	0	(0)	5	(25.0)	6	(20.7)
4. Obtaining recognition from others	Absolutely No	3	(15.0)	2	(10.0)	1	(3.4)
	No	7	(35.0)	16	(80.0)	18	(62.1)
	Yes	10	(50.0)	2	(10.0)	8	(27.6)
	Absolutely Yes	0	(0)	0	(0)	2	(6.9)
5. Establishing a social position	Absolutely No	11	(57.9)	5	(25.0)	1	(3.4)
	No	0	(0)	12	(60.0)	19	(65.5)
	Yes	8	(42.1)	2	(10.0)	8	(27.6)
	Absolutely Yes	0	(0)	1	(5.0)	1	(3.4)
6. Satisfying the meaning of life	Absolutely No	0	(0)	1	(5.3)	2	(6.9)
	No	12	(60.0)	8	(42.1)	11	(37.9)
	Yes	7	(35.0)	9	(47.4)	12	(41.4)
	Absolutely Yes	1	(5.0)	1	(5.3)	4	(13.8)
7. For my family	Absolutely No	0	(0)	0	(0)	2	(7.1)
	No	6	(31.6)	7	(36.8)	9	(32.1)
	Yes	9	(47.4)	10	(52.6)	13	(46.4)
	Absolutely Yes	4	(21.1)	2	(10.5)	4	(14.3)
8. Performing my duty for the society as a member of the society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7	(35.0)	4	(21.1)	7	(24.1)
	Yes	11	(55.0)	12	(63.2)	16	(55.2)
	Absolutely Yes	2	(10.0)	3	(15.8)	6	(20.7)
9. Making friends with various people	Absolutely No	1	(5.0)	0	(0)	0	(0)
	No	8	(40.0)	4	(21.1)	7	(24.1)
	Yes	11	(55.0)	13	(68.4)	14	(48.3)
	Absolutely Yes	0	(0)	2	(10.5)	8	(27.6)
10. For my retirement	Absolutely No	0	(0)	0	(0)	3	(10.3)
	No	5	(25.0)	6	(30.0)	10	(34.5)
	Yes	10	(50.0)	12	(60.0)	12	(41.4)
	Absolutely Yes	5	(25.0)	2	(10.0)	4	(13.8)

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을 위해 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언제라도 다른 회사로 이동해야 한다’에서 한국과 호주는 ‘그렇다’가 카나다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동시에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업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에서 한국은 ‘그렇다’,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면 다소 승진이 늦어지더라도 참을 수 있다’에서 한국, 캐나다, 호주 모두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일생에 걸친 긴 직업생활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선택해야 한다’에서 한국, 캐나다, 호주 모두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업은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다’와 ‘현재 직장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업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에서 한국은 ‘그렇다’가 높게 나타난 반면 호주와 카나다는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의견에서 캐나다와 호주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6. 직업에 대한 보수

‘현재 급여는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적

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급여는 업무량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근무시간 이외의 수당 지급방법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에서 한국, 캐나다, 호주 모두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 ‘수당지급방법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Table 6).

7. 직업에 대한 복지후생

‘직장의 고충사항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무환경(편의시설 포함) 및 근무조건에 타 병원에 비하여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서 한국과 캐나다 모두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휴가 및 포상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서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다’가 높은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았다. 또한 ‘귀하는 현재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다’가 높은 반면에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해 캐나다와 호주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Table 7).

Table 5. Ideas on the job

Description	Item	Korea		Canada		Australia	
		n	(%)	n	(%)	n	(%)
1. A job is important as much as a marriage.	Absolutely No	0	(0)	2	(11,1)	2	(7,1)
	No	1	(5,0)	8	(44,4)	13	(46,4)
	Yes	11	(55,0)	6	(33,3)	8	(28,6)
	Absolutely Yes	8	(40,0)	2	(11,1)	5	(17,9)
2. I will quit my job for getting other jobs if I get a better chance for me.	Absolutely No	0	(0)	2	(10,5)	2	(6,9)
	No	6	(30,0)	6	(31,6)	11	(37,9)
	Yes	9	(45,0)	6	(31,6)	14	(48,3)
	Absolutely Yes	5	(25,0)	5	(26,3)	2	(6,9)
3. It is better to prepare unexpected coming unemployment rather than making efforts in the present job.	Absolutely No	0	(0)	5	(25,0)	4	(13,8)
	No	8	(40,0)	9	(45,0)	17	(58,6)
	Yes	11	(55,0)	6	(30,0)	7	(24,1)
	Absolutely Yes	1	(5,0)	0	(0)	1	(3,4)
4. I can bear a late in promotion if I feel some achievements and worths in my works.	Absolutely No	1	(5,0)	0	(0)	0	(0)
	No	7	(35,0)	1	(5,0)	2	(7,1)
	Yes	9	(45,0)	17	(85,0)	25	(89,3)
	Absolutely Yes	3	(15,0)	2	(10,0)	1	(3,6)
5. A job is to be selected by a plan for a long term period of works throughout the life rather than following conditional situations.	Absolutely No	0	(0)	0	(0)	0	(0)
	No	6	(30,0)	5	(25,0)	10	(34,5)
	Yes	11	(55,0)	14	(70,0)	18	(62,1)
	Absolutely Yes	3	(15,0)	1	(5,0)	1	(3,4)

**Table 6.** Salaries for the job

Description	Item	Korea		Canada		Australia	
		n	(%)	n	(%)	n	(%)
1. I think my salary is reasonable for considering my ability and career.	Absolutely No	2	(10.0)	3	(15.8)	1	(3.6)
	No	4	(20.0)	3	(15.8)	9	(32.1)
	Yes	10	(50.0)	10	(52.6)	18	(64.3)
	Absolutely Yes	4	(20.0)	3	(15.8)	0	(0)
2. I think my salary is reasonable for considering my workloads.	Absolutely No	4	(20.0)	1	(5.9)	1	(3.4)
	No	5	(25.0)	3	(17.6)	8	(27.6)
	Yes	8	(40.0)	10	(58.8)	20	(69.0)
	Absolutely Yes	3	(15.0)	3	(17.6)	0	(0)
3. I think the payment of overtime pay is reasonable.	Absolutely No	2	(10.0)	1	(5.6)	1	(3.7)
	No	6	(30.0)	0	(0)	1	(3.7)
	Yes	7	(35.0)	11	(61.1)	20	(74.1)
	Absolutely Yes	5	(25.0)	6	(33.3)	5	(18.5)

**Table 7.** Entitlement programs for the job

Description	Item	Korea		Canada		Australia	
		n	(%)	n	(%)	n	(%)
1. I do my best for solving complaints in the job.	Absolutely No	1	(5.6)	0	(0)	0	(0)
	No	3	(16.7)	1	(5.6)	0	(0)
	Yes	9	(50.0)	13	(72.2)	25	(86.2)
	Absolutely Yes	5	(27.8)	4	(22.2)	4	(13.8)
2. I think work environments (including facilities) and other conditions are better than other hospitals.	Absolutely No	2	(10.0)	0	(0)	0	(0)
	No	6	(30.0)	7	(36.8)	2	(7.4)
	Yes	8	(40.0)	10	(52.6)	22	(81.5)
	Absolutely Yes	4	(20.0)	2	(10.5)	3	(11.1)
3. I think the vacation and reward system is well performed.	Absolutely No	2	(10.0)	0	(0)	1	(3.4)
	No	8	(40.0)	0	(0)	3	(10.3)
	Yes	7	(35.0)	15	(75.0)	23	(79.3)
	Absolutely Yes	3	(15.0)	5	(25.0)	2	(6.9)
4. I think they guarantee my status.	Absolutely No	3	(15.0)	0	(0)	0	(0)
	No	6	(30.0)	2	(10.5)	3	(10.3)
	Yes	8	(40.0)	9	(47.4)	19	(65.5)
	Absolutely Yes	3	(15.0)	8	(42.1)	7	(24.1)
5. I think a labor union should be necessary to protect employees' rights and interests.	Absolutely No	1	(5.0)	1	(5.0)	0	(0)
	No	3	(15.0)	4	(20.0)	0	(0)
	Yes	10	(50.0)	8	(40.0)	17	(58.6)
	Absolutely Yes	6	(30.0)	7	(35.0)	12	(41.4)
6. Do you think your job is stable in the present moment?	Absolutely No	8	(40.0)	0	(0)	0	(0)
	No	2	(10.0)	1	(5.0)	0	(0)
	Yes	7	(35.0)	12	(60.0)	21	(72.4)
	Absolutely Yes	3	(15.0)	7	(35.0)	8	(27.6)

**8. 국가별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수준 차이**

국가별로의 직업의식을 비교한 결과 직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 의견, 복지후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캐나다(3.42)와 호주(3.45)가 한국(2.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호주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직업에 대한 의견은 한국(2.90)이 캐나다(2.60)와 호주

(2.59)보다 높게 나타났고 캐나다와 호주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직업에 대한 복지후생은 캐나다(3.11)와 호주(3.15)에 비해 한국(2.71)이 낮게 나타났고 캐나다와 호주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복지후생 수준이 높은 반면 직업에 대한 의견은 낮았고, 한국의 경우는 직업에 대한 의견은 높으나 복지후생이나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Table 8).



**Table 8.** A difference of levels between korea, canada, australia in self-efficacy, values, ideas, salaries, entitlement programs for the job

Description	Item	Mean±s.d.	F
Self-efficacy	Korea a	2.82±0.26	22.507**
	Canada b	3.42±0.38	
	Australia b	3.45±0.35	
Values	Korea	2.68±0.15	0.870
	Canada	2.81±0.30	
	Australia	2.81±0.46	
Ideas	Korea b	2.90±0.30	4.770*
	Canada a	2.60±0.38	
	Australia a	2.59±0.40	
Salaries	Korea	2.68±0.77	0.976
	Canada	2.98±0.72	
	Australia	2.78±0.51	
Entitlement programs	Korea a	2.71±0.53	8.120**
	Canada b	3.11±0.35	
	Australia b	3.15±0.26	

\* P < 0.05, \*\* P < 0.01

**9. 국가별 직업의식에 관한 변수별 관련성**

한국의 경우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r = 0.644$ 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업에 대한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보수만족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든 항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호주의 경우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가치, 의견, 보수, 복지후생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가치와 의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r = 0.704$ 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치가 높을수록 의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IV. 결 론**

최근 방사선분야의 해외진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방사선사의 해외취업과 관련된 직업의식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비하다. 따라서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직업관을 국제적 맥락에서 조망하기 위해 한국, 캐나다 및 호주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직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캐나다는 2007년 8월 13일부터, 한국은 2007년 9월 10일부터, 호주는 2008년 8월 4일부터 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성원의 성별로 한국은 남자 18명(90%), 캐나다와 호주는 여자가 각각 14명(73.7%), 25명(86.2%)으로 국가별 방사선사 구성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한국, 캐나다, 호주 모두 '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수'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가치에서 한국은 '경제적 자립', '남

**Table 9.**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for the job consciousness

Description	Item	Self-efficacy	Values	Ideas	Salaries	Entitlement programs
Korea	Self-efficacy	1				
	Values	-0.065	1			
	Ideas	0.400	0.052	1		
	Salaries	0.644**	-0.168	0.085	1	
	Entitlement programs	-0.102	-0.414	-0.421	0.165	1
Canada	Self-efficacy	1				
	Values	0.057	1			
	Ideas	-0.361	0.223	1		
	Salaries	0.393	0.376	-0.030	1	
	Entitlement programs	0.347	0.107	-0.298	0.254	1
Australia	Self-efficacy	1				
	Values	0.062	1			
	Ideas	0.017	0.704**	1		
	Salaries	0.182	-0.164	-0.013	1	
	Entitlement programs	0.203	0.054	0.035	0.330	1

\*\* P < 0.01, \* P < 0.05

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이 높게 나타났고 캐나다와 호주는 '일 자체가 좋아서', '자아실현을 위하여',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의견 중 '직업은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다'에서 한국은 '그렇다',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 캐나다, 호주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직업의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캐나다와 호주에 비교하여 직업관련 의식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각 변수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구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 실체에 대한 해석을 반영하기 때문에<sup>5)</sup>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취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1. 이원재 : 대학생의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직업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7
2. 고정근 :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횡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06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의식함양을 위한 홍보자료 개발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6. 윤일선 : 대학행정직원의 직무만족도 비교, 분석-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 Abstract

## The Job Consciousnes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Korea, Canada, and Australia

Eun-Ok Han · Deok-Mun Kwon · Kwang-Hun Park ·  
Seung-Yoon Choi · Chung-Hyun Jung · Sang-Il Bae<sup>1)</sup> · Chang-Woo Oh<sup>2)</sup>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sup>1)</sup>*Radiation Oncology,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sup>2)</sup>*Radiation Oncology, Severance Hospital Cancer Center*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overseas employment to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students majoring in radiology in Korea who consider the overseas employment by investigating the job consciousnes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Canada and Australia which have a high level of interest for overseas employment and want to compare their status with that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is study was performed by visiting hospitals such as Prince George Regional Hospital, 1475 Edmonton Street, Prince George, BC, Canada on August 13, 2007, Alfred Hospital, Commercial Road Melbourne 3004, Australia on August 4, 2008, and other Korea hospitals that show the similar scale as Canada and Australia on September 10, 2007.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is sexual composition, such as 18 males (90%) in Korea, 14 females (73.7%) in Canada, and 25 females in Australia (86.2%).
2. The item of 'aptitud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teria, showed the highest level in Korea, Canada, and Australia, and the second most considered item was 'salary'.
3. In the values in jobs, the items of 'economic self-sufficiency', 'recognized by others', and 'establishing a social position' represented high levels in Korea, and the items of 'like the job itself', 'establishing self-actualization', 'feel the meaning of life', and 'make new friends' showed high levels in Canada and Australia.
4. Regarding the item of 'a job is important as much as a marriage', 'Yes' showed high level in Korea, and 'No' showed high levels in Canada and Australia.
5.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Korea demonstrated a low level in the job consciousness compared to those of Canada and Australia.

Although this study shows some limitations for showing whole idea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due to the lack of the scope in samples for each country as a practical manner, this study can be regarded significant to compare some countries that have interests in overseas employment.

**Key Words :** Korea, Canada, Australia, job consciousness, radiological technologists